



LG産電(株), 콤팩트한 누전차단기 개발

LG産電(株) (代表 : 李鍾秀)는 기존제품 보다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콤팩트한 누전차단기 14종(모델명 : HiMEC 시리즈)을 개발, 이달말부터 본격 출시한다.

차단기란 전기회로에서 사고발생시 화재나 또다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회로를 차단해주는 장치로 LG산전은 이제품의 개발을 위해 지난 3년동안 설비투자 포함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다.

기존의 배전반의 경우 선로의 이상전류에 대해서만 차단해주는 배선용차단기를 이상전류는 물론 누전까지도 차단해 주는 누전차단기로 교체시 외형크기의 차이로 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HiMEC 시리즈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한 제품으로 기존 누전차단기에 비해 외형크기를 반으로 줄여 배선용차단기와 같은 크기로 1:1 교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매자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배전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외형크기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성능면에서는 정격차단전류를 기존 대비 100%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제품은 누전차단 표시버튼을 부착하여 누전차단기의 차단원인인 과전류에 의한 차단과 누전에 의한 차단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기존누전차단기는 전원 및 부하측에 전원을 역접속시 누전사고를 감지하지 못하는 반면 HiMEC 시리즈는 전자회로의 성능을 향상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더욱 안전성을 높였다.

LG산전이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30AF(Ampere Frame)부터 225AF까지의 소형제품으로 국내는 물론 남미, 동남아 등에 20여가지의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중·대형인 400AF이상의 제품은 오는 '97년 출시 예정으로 현재 개발중에 있다.

LG산전은 저압차단기의 내년도 1000억원 매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에 주력함과 동시에 주요납품처인 대형 배전반업체와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신제품 홍보를 강화, 남미 및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大韓電線(株), 싱가포르에 전선 턴키 輸出

大韓電線(株) (代表 : 兪彩濬)가 싱가포르 최대의 초고압 프로젝트에 세계 우수 케이블社와 함께 응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대한전선은 싱가포르전력청(PG)이 발주한 3천1백만달러 규모의 76KV XLPE전력 케이블 턴키 프로젝트에 英國 BICC, 스위스 COCO, 日本 미쯔비시·스미또모 등 세계 유명 케이블제조社와 경합, 최종적인 공급자로 결정됐다.

대한전선은 특히 이번 초고압프로젝트가 자격심사기준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싱가포르전력청 발주 인데다 규모면에서도 최대인 것으로 알려져 제품의 성능면이나 공사수행능력이 세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사는 향후 싱가포르에서 발생될 대규모 전력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 후발개발도상국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우선권을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싱가포르전력청의 초고압전력케이블 턴키공사는 내년 1월부터 오는 97년 8월까지 20개월에 걸쳐 칼랑베이신의 8개 지역에 포설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전선은 3백억원을 투자, 초고압전력케이블 생산설비인 1백25m 높이의 VCV(수직연속압출가교설비) 타워를 세운다.

VCV타워는 높이가 높을수록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는 설비인데 1백54kV이상의 초고압케이블제조가 가능하게 됐다.

대한전선은 이 타워를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인데 공사가 끝나면 초고압 케이블 생산능력이 연간 5천톤(동량기준)에서 1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東邦電機工業(株), '95 우수 자본재 개발 유공자 수상

東邦電機工業(株)의 梁泰權 전무가 '95 우수 자본재 개발 유공자로 뽑혀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기계전 개막리셉션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梁泰權 전무는 지난 82년 한양大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동방전기에 몸담아오면서 공장품질 관리 향상 및 신기술 개발, ISO 9002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중전기분야 경영혁신에 남다른 공적을 쌓아 이번 수상케 되었다.

특히 우수자본재로 선정된 낙뢰보안장치용 변압기를 국산화, 국가적으로 막대한 수입대체효과를 거둔 것은 물론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지하설치용 변압기 및 장해파 차단변압기를 개발, 업계의 국산화를 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이밖에도 분임조 활동을 활성화하고 표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중단없는 TQC 추진으로 ISO 9002인증을 획득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코오롱엔지니어링(株), DCS 사업 강화

수처리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오롱엔지니어링은 독일 하트만 & 브라운社와 기술제휴를 맺으면서 컨트롤러시리즈를 공급해 왔다. 사업초기 부터 「컨트로닉-P」의 대형 DCS를 공급해 오던 이 회사는 올해 「컨트로닉-S」를 출시했다. 기존의 「컨트로닉-P」와 상호통신 및 결합이 가능한 「컨트로닉-S」는 개방형시스템으로 O/S를 UNIX로 하고 있다.

하드웨어는 휴렛 팩커드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게이트 웨이를 통해 타기종과의 연결도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을 플랜트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기억장치들을 기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시스템으로 대형 프로젝트 영업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형 규모의 프로젝트는 <디지마틱>으로 수주에 참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디지마틱>은 M/S DOS를 채택한 개방형 아키텍처로 처리속도가 매우 빠른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간편한 조작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용이하다는 점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시화 수처리, 수원 수처리 등의 수주로 8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올해는 기존 납품 프로젝트 증설에 주력하면서 중소규모의 플랜트와 민수시장 영업을 강화한다는 계획하여 150억원의 수주를 목표하고 있다.